

## 蔣介石과 6·25전쟁 : 그 인식과 대응

劉維開\*

1. 머리말
2. 6·25전쟁에 대한 蔣介石의 인식
3. 蔣介石의 한국파병 계획
4. 蔣介石의 정전담판 조정
5. 맺음말

### 1. 머리말

1950년 6월 발생한 6·25전쟁은 국제적인 큰 사건이었을 뿐 아니라 臺灣에도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 당시 中華民國 정부는 臺灣으로 옮겨온 지 반년밖에 안되었고 蔣介石이 總統 직에 복직한 것도 겨우 3개월 여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민심이 동요하고 앞날이 불확실하여 일반 민중은 물론 정부 관리들조차 시국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6·25전쟁 발발 후 미국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이 제7함대에

臺灣해협을 방어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상황은 순식간에 바뀌게 되었다.<sup>1)</sup> 이에 어떤 이는 “한국전쟁이 1950년의 臺灣 정국에 미친 영향은 西安事變이 中共의 운명을 가름한 것과 같은 역사적 전환의 무게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sup>2)</sup>

이러한 중요한 사건에 대해 蔣介石은 그의 풍부한 정치적 경험에 의거하여 독자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초기 군대를 파견하여 6·25전쟁에 참전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통해 공산세력에 대항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참전계획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결국 실현되지 못했지만 蔣介石은 6·25전쟁의 추이에 대해 줄곧 깊은 관심을 가졌고, 한때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간의 정전문제 담판에 대해서도 개인적 역량을 다해 중재에 나섰다. 본고는 蔣介石의 6·25전쟁에 대한 인식과 참전계획의 결정 및 1953년 한·미간 정전문제를 둘러싼 교착 국면에 대한 중재 등을 통해 蔣介石의 6·25전쟁 인식과 대응 방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고의 자료는 최근 재단법인 中正文教基金會가 출판한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의 1950~1953년 부분 중 관련 내용을 주로 사용하였고, 아울러 國史館에 소장된 ‘蔣中正總統檔案’ 중 관련 문건과 전보 및 당사자의 회고록 등을 이용했다.

### 2. 6·25전쟁에 대한 蔣介石의 인식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 소식을 들은 蔣介石은 즉시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보를 보내 관심을 표했다. 電文에서 蔣介石은 “보고에 따르면

1) 雷震은 6월 28일 일기에 “이 소식을 듣고 모두 크게 흥분하여 홍콩으로 가려던 많은 인사가들이 이를 보류하였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하루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20% 상승하였다고 한다.”라고 적고 있다. 傅正主編, 『雷震全集-第一個十年(雷震日記2)』(臺北: 桂冠圖書股份有限公司, 1989. 5), 134쪽 1950년 6월 28일.

2) 梁敬錚, 『中美關係論文集』(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1982. 12), 263쪽.

\* 臺灣國立政治大學 역사학과 부교수.

북한 인민정부라는 자들이 대거 귀국을 침공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소련이 획책한 음모 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양국은 反共과 반침략에 있어 같은 입장에 있으므로 소식을 듣고 깊은 관심을 표하는 바입니다”라고 했다.<sup>3)</sup> 또 그는 그날 일기에 6·25전쟁 발발을 “예상했던 바다”라고 자신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다.<sup>4)</sup> 그는 국제 정세에 대한 자신의 관심 및 주한 대사 邵毓麟의 보고 등의 채널을 통해서 남북한 대립의 긴장상황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 발생을 단순한 남북한의 군사충돌로 보지 않고 “소련이 획책한 음모 가운데 하나”로 확정하면서 이 점을 직접 지적해야 만이 한국전쟁의 본질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는 중화민국 유엔대표 蔣廷黻에게 미국이 제출한 남한원조안에 대해 전력을 다해 지지할 것을 훈령했다. 그러나 전쟁을 일으킨 북한의 배후에 소련의 사주가 있음을 지적하지 못하고 단지 남북한 쌍방의 정전을 요구한 미국의 제안에 대해 개탄하면서 미국이 도의와 책임 관념이 전혀 없으며 만약 남한이 소련에 점령당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고 생각했다.<sup>5)</sup>

6월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의 제안을 통과시키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여 무장공격을 격퇴하고 해당 지역의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길 호소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맥아더(MacArthur) 원수에게 지상부대를 동원하여 남한의 군사 작전에 협조할 권한을 부여했다.

3) 秦孝儀總編纂,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9(臺北:財團法人中正文教基金會, 2002. 12), 181쪽 6월 25일. 본서는 재단법인 중정문교기금회의 故 秦孝儀 선생이 주관한 ‘增補編, 『先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計劃’의 성과 중 하나이다. 이 계획은 前 中國國民黨 中央黨史委員會 주임위원 李雲漢 교수와 前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소장 呂芳上 교수, 중국국민당 文化傳播委員會 黨史館 주임 邵銘煌 교수 및 정치대학 역사학과 부교수 劉維開가 編輯小組를 조직하여 원래 1949년까지 편찬되고 중단되었던 『先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의 편찬 작업을 연장한 것이다. 200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1950~1953년도 부분 총 4책이 차례로 출판되었다.

4)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卷9, 181쪽 1950년 6월 25일.

5)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卷9, 181쪽 1950년 6월 25일.

7월 3일 蔣介石은 중앙 각 부처 관리가 모인 자리에서 ‘한국전쟁에 대해 유엔이 가져야 할 경각심과 조치’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면서 국제 정세에 대한 분석과 남한의 반공전쟁에 대한 감상을 피력했다. 그는 이 강연에서 “이번 침략전쟁은 전적으로 소련의 배후 조종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북한 괴뢰의 명의를 빌렸을 뿐이다. 북한괴뢰의 輕重 화기와 비행기, 탱크 등은 모두 소련이 제공한 것이고, 북한의 군대 역시 소련이 단독으로 조직 훈련 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전쟁은 소련이 배후에서 사주한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실제적으로 이를 주관하고 있다. 전 세계는 소련의 공군과 장갑부대가 이미 한국의 상공과 지상에서 민주국가와 전투를 벌이고 있음을 모두 알고 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sup>6)</sup>

이 때문에 그는 유엔의 북한 제재 결의가 결코 전쟁을 종식시킬 수 없다고 여기고, “유엔이 이번에 북한괴뢰의 군대를 완전히 궤멸시키고 심지어 북한괴뢰정권을 소멸시킨다 할지라도 여전히 침략자 그 자체에 타격을 가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침략자는 변함없이 자유자재로 언제 어디서든지 민주국가에 대해 또 다른 침략전쟁을 발동할 수 있을 것이다. 하물며 만약 소련이 한국전쟁의 주범임을 지적하고 그에게 북한의 침략행동을 저지할 책임을 명백히 묻지 않는다면 한국전쟁은 반드시 무기한으로 연장될 것이고 결코 해결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sup>7)</sup>

따라서 蔣介石은 유엔과 민주국가의 정치가들이 만약 세계 평화를 보장할 책임을 진다면, 하루 빨리 6·25전쟁을 종결시켜야 하며 세계대전의 위험을 해소할 유일한 방법은 6·25전쟁이 소련의 교사 하에 발동된 즉 소련이 전쟁의 주범임을 용감히 지적하여 전쟁에 대한 책임을 확정지어야 할 뿐 아니라 그로 하여금 남한에 대한 북한의 진공을 제지하도록 책임지어야 한다고 여겼다. 蔣介石은 “나는 이러한 정당당한 방법만이 한국전쟁을 종

6) 秦孝儀主編, 『總統蔣公思想言論總集』(臺北: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1985. 10), 卷23 演講, 316쪽.

7) 『總統蔣公思想言論總集』卷23 演講, 317쪽.

결사키고 아시아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으며, 소련으로 하여금 다시는 감히 각국 공산당이 국내에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선동하지 못하게 하고 각국 인민들도 더 이상 그 위협을 받거나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여긴다.”라고 했다.<sup>8)</sup> 이후 6·25전쟁의 전개과정을 보건대 蔣介石의 이러한 관찰과 판단은 분명 상당히 날카로운 면이 있었다.

한편, 蔣介石은 6·25전쟁의 발생을 또한 서방 민주국가의 아시아 정책의 실패로 간주했다. 여기서 소위 ‘서방 민주국가’란 미국과 영국, 특히 미국을 가리킨다. 蔣介石은 1949년의 실패를 경험한 후 그 실패의 원인을 거듭 반성하고 검토한 결과 중국 자체의 문제 외에 미국의 중국정책 역시 상당한 정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했다. 미국의 중국정책은 원래 유럽을 아시아보다 중시하는 이른바 重歐輕亞 정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정세 변화(국민당의 패퇴와 공산중국의 성립—역자 주)는 단지 미국이 중국에서 실패한 것만 아니라 미국의 重歐輕亞 정책이 빚어낸 결과라는 것이다.<sup>9)</sup> 蔣介石은 1949년 7월과 8월에 중국국민당 총재의 신분으로 필리핀의 퀴리노(Elpidio Quirino) 대통령과 바기오(Baguio)에서,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과 진해에서 회담을 잇달아 가진 바 있다. 목적은 바로 極東 국가 스스로의 힘을 결합하여 이 지역에서의 공산세력 확장에 공동 대응하는 데 있었다.<sup>10)</sup>

蔣介石은 6·25전쟁이 발생하자 전쟁의 배후에 소련의 음모가 있고, 이것이 서방 민주국가의 아시아정책이 실패한 결과임을 아울러 지적했다. 그는 민주국가가 유럽에서 (북)대서양공약, 즉 나토조약을 체결하고 마샬플랜을 실시하여 공산군제세력의 팽창을 철저히 막았던 데 반해 아시아에서는 소련제국주의의 중국 침략을 좌시한 채 아무리 호소하고 제소하여도 유엔은 마치 바보 귀머거리인양 상대해주지 않았다고 불평하면서, 이러한 重歐

8) 『總統蔣公思想言論總集』卷23 演講, 319쪽.

9) 『總統蔣公思想言論總集』, 卷23 演講, 320~321쪽.

10) 董顯光, 『蔣總統傳』(臺北: 中華大典編印會, 1967. 10), 529~531쪽.

輕亞 정책은 중국 인민에게 극심한 고통과 실망을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아시아 민족들도 중국 정세의 변화를 보고 놀라 유엔에 대해 더 이상 어떤 희망도 갖지 않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蔣介石은 또 6·25전쟁 발발 후 북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군사행동을 취한 유엔의 조치는 아시아인의 반공 역량을 증진시키고 유엔의 위신을 만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만약 유엔과 주요 민주국가의 정치가들이 아시아인의 반공 의지를 견고히 하여 소련의 속임수에 넘어가 이용당하지 않게 하려면 세계 평화가 지역을 나누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과거의 유럽만 중시하고 아시아를 경시했던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아시아인의 자유와 노역에 대해 유럽과 마찬가지로 관심을 갖고 아시아인의 반공 노력에 대해서도 유럽과 같은 지지를 보내야 한다. 특히 정신생활을 중시하는 아시아 민족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해서 각 민족의 인격을 존중하여 그들로 하여금 능히 평등한 입장에서 반침략 反共產을 위해 서방 민주국가와 공동 작전을 펼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할 때 비로소 아시아인의 마음을 달래고 그 역량을 모아 아시아의 반공 전쟁에서 최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표명했다.<sup>11)</sup>

蔣介石은 소련의 침략 본성을 폭로하기 위해 6·25전쟁 발발 다음날인 26일 (국민정부) 군정 수뇌와 미국인 고문 쿡(Charles Cooke) 등을 소집하여 소련을 유엔에 제소할지를 논의하였는데, 사안이 외교실무와 관련된 것이어서 오랜 토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방침도 결정할 수 없었다.<sup>12)</sup>

한편 국민정부의 외교부장 葉公超는 蔣介石의 지시로 주미대사 顧維鈞에게 전보를 보내 蔣廷黻과 함께 유엔 안보리에 소련이 남한 침공의 진정한 침략자이며, 북한은 소련의 괴뢰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한 청원 제출여부를 연구하도록 요청했다. 顧維鈞과 蔣廷黻은 상의 결과, 이런 행동이 도리어 미국의 오해—臺灣 측이 소련을 목표로 삼아 사태를 확대시키려 한다는—를

11) 『總統蔣公思想言論總集』, 卷23 演講, 321쪽.

12)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卷9, 182쪽 1950년 6월 26일.

불러 일으켜서 臺灣의 처지를 불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sup>13)</sup> 그 후 트루먼 대통령이 미 제7함대에게 臺灣해협을 방어하도록 결정한 명령을 발표하고 이로 인해 臺灣을 둘러싼 형세가 급변하게 됨으로써 6·25 전쟁이 臺灣의 주권에 미치는 영향을 깨달은 蔣介石은 더 이상 이 주장을 제기하지 않게 되었다.

### 3. 蔣介石의 한국과병 계획

6·25전쟁 발발 후 남한이 직면한 가장 가혹한 문제는 바로 북한의 공격과 자신의 군사력 부족이었다. 일찍이 그 해(1950년) 초 蔣介石은 남한 주재 자국 외교관의 보고를 통해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게다가 같은 해 미국이 남한에 대한 군사원조를 중단함으로써 남한의 군사적 상황은 더욱 낙관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때문에 중(화민국)한 양국의 우호관계에 입각하여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 蔣介石은 즉시 남한의 병력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sup>14)</sup> 앞에서 언급한 26일 회의의 또 다른 의제는 '한국과병'문제였는데 당시 정세가 아직 불투명한 상태여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sup>15)</sup>

6월 29일 중화민국 정부가 유엔으로부터 회원국의 한국과병을 승인한 안

13)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所譯, 『顧維鈞回憶錄』, 第8分冊(北京:中華書局, 1989.3), 6쪽.  
 14) 주한 중화민국 대사 邵毓麟은 (6월) 26일 蔣介石에게 전보를 보내어, 미국 측이 제공한 약 10대의 P51 전투기가 곧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지만 미국이 자국민의 참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한국 측도 이 기종의 비행기를 조종해본 경험자가 없기 때문에 서울이 위급한 상황에서 한국 측이 조종사 파견을 우리에게 요청할지도 모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蔣介石은 고려해보겠으나 먼저 한국 측이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의향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미국 측과 바로 접촉하기를 바란다는 답전을 보냈다. 『特交檔案分類資料-對韓國外交』, 檔號080106, 第069卷, 編號08A-01772, 國史館藏『蔣中正總統檔案』數位檔案.  
 15)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卷9, 182쪽 1950년 6월 26일.

보리의 결의를 통지받자, 蔣介石은 즉시 육군 3개 사단의 파견을 결정했다.<sup>16)</sup> 30일 蔣介石은 참모총장 周至柔와 국방부장 郭寄嶠를 불러 한국과병 부대의 편성방안을 논의한 끝에, 먼저 劉廉一 장군이 지휘하는 제67군을 주력으로 제80군의 제201사단을 더하여 약 3만 3,000명으로 된 1개 군을 편성하고 20대의 C-46수송기로 이들을 실어 나르기로 결정했다.<sup>17)</sup> 제67군은 1949년 10월 舟山群島 登步島 전투의 주력부대였고, 제201사단은 같은 달 金門 古寧頭 전투의 주력부대였는데, 두 부대 모두 공산군과 작전한 경험과 승리의 기록을 갖고 있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蔣介石이 한국과병 부대 선정 시 신중하게 고려하였음을 볼 수 있다. 7월 1일 蔣介石은 劉廉一을 불러 그 자리에서 한국과병 부대의 지휘임무를 부여하고 아울러 부대 편성의 요지를 지시했다.<sup>18)</sup>

사실 한국과병과 참전을 둘러싸고 국민정부 내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군부 측은 군비가 부족할 뿐 아니라 미국의 원조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 파병에 반대한 반면 외교부에서는 마땅히 참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네 시간의 논쟁 끝에 결국 파병이 결정되었다.<sup>19)</sup> 蔣介石 역시 파병에 대해 상당히 염려하여, “만약 우리 군대를 한국에 파견한다면 전반적인 전략과 최대 병력을 미리 결정해야 하며 최소한 10만 명 이상의 예비부대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 한국과병이 反攻大陸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군사와 정치의 기본조직과 제도 및 기본 역량이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 시간을 앞당겨 반공대륙 정책을 추동하면 매우 불리할 것”이라고 여겼지만 중한 양국의 처지가 같았기 때문에 ‘反共’이란 전제 하에 그는 한국과병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sup>20)</sup>

16)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卷9, 186쪽 1950년 6월 29일.  
 17)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卷9, 186쪽 1950년 6월 30일; 邵毓麟, 『使韓回憶錄』(臺北:傳記文學出版社, 1980. 11), 169쪽; 『顧維鈞回憶錄』, 第8分冊, 17쪽.  
 18)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卷9, 187쪽 1950년 7월 1일.  
 19) 『顧維鈞回憶錄』, 第8分冊, 11~12쪽.  
 20)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卷9, 187~188쪽 1950년 7월 1일.

중화민국 정부가 비록 한국과병 준비를 마쳤지만 중화민국 군대가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관건은 미국에 달려 있었다. 미국무부는 중화민국 군대의 유엔군 참가가 매우 민감한 문제로,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군사원조의 구실을 줄 수도 있다고 여겨 매우 조심스런 태도를 취했다.

다른 한편 미국 측은 중화민국 정부가 이 기회를 이용해 미국의 군사원조를 쟁취하려 들 것으로 보았다.<sup>21)</sup> 그러나 미 국무부는 이런 우려를 분명히 드러내지 않고 국부군의 파병참전 결정을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에게 떠넘기고, 臺灣 방위계획에 대해 유엔군 사령부와 臺灣의 군사당국이 먼저 연구하기를 희망했다.<sup>22)</sup> 蔣介石은 이것이 매우 잘못된 생각이며, 미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중공의 군사원조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중국을 억압하여 국제사무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태도라고 보았다.<sup>23)</sup>

국부군의 참전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동경으로 파견된 쿡은 7월 2일 맥아더와의 담화내용을 蔣介石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국부군의 한국 지원 방안에 관해서는 미 국무부와 상의한 후 다시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국부군의 참전이 중공군의 공공연한 북한 원조와 참전을 초래할 것에 대한 우려에 있었다.<sup>24)</sup> 4일 중화민국 주일대표단 단장 何世禮는 맥아더를 만나 중화민국 정부의 한국과병 문제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다. 맥아더는 중화민국 정부가 어려운 상황 하에서 파병결정을 내린 것은 반공전선의 연대와 臺灣과 미국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행동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21) 『顧維鈞回憶錄』, 第8分冊, 25쪽.

22) 미 국무부는 회답에서 “미국정부는 한국과병이 대만의 방어병력 일부를 감소시키는데 따른 이해득실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맥아더 사령부 대표가 대만의 중국군사당국과 대만 방어계획에 대해 모든 것을 협상해야 할 것 같다고 여긴다.”라고 했다. 『蔣中正總統檔案』, 『特交檔案分類資料-對韓外交』, 檔號080106, 第070卷, 編號08A-01776.

23)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卷9, 186~187쪽 1950년 7월 1일.

24)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卷9, 188쪽 1950년 7월 2일.

서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첫째, 臺灣은 태평양 상의 요충으로 결코 잃을 수 없고 그 중요성은 실로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나는 반드시 전력을 다해 臺灣을 지지할 것이다. 둘째, 나는 국민정부가 하루 빨리 대륙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따라서 군대 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조금이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셋째, 臺灣의 군대를 북쪽으로 이동(즉 한국과병) 시킨다면 미군이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할 터인데, 그보다는 미군이 직접 참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다. 넷째, 쿡의 말에 따르면 臺灣 측은 중화기가 부족하고 병사 급여를 지급할 돈도 없으며 수송 능력도 매우 결핍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 한국에는 아직 가용할 수 있는 7만 5,000명의 보병이 있는데, 그들이 패한 이유도 단지 중화기 부족 때문이었다. 만약 귀측이 한국전쟁에 참전한다면 미군이 현재 지고 있는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므로 당분간 파병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섯째, 나는 먼저 제7함대 사령관을 臺北에 파견하여 미 해공군과 협력할 수 있도록 국부군을 재편해서 별도의 용도로 사용할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sup>25)</sup> 즉 맥아더는 국부군의 유엔군 참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何世禮는 회답의 주요 내용을 먼저 蔣介石에게 보고한 다음 이 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구체적인 회답내용을 슬회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다른 한편 蔣介石은 邵毓麟의 보고를 통해 국부군 파병에 대해 이승만의 태도도 적극적이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sup>26)</sup> 7월 31일 이틀 일정으로 臺灣를 방문한 맥아더는 蔣介石과 관련 군사문제에 대한 회담을 가졌다. 맥아더의 臺灣 방문 전, (중화민국 정부) 관련 당국은 미리 중미 양국의 군사 의제에

25) 『蔣中正總統檔案』, 『特交檔案分類資料-美政要來訪』, 檔號080106, 第056卷, 編號08A-01711.

26) 邵毓麟, 『使韓回憶錄』, 177쪽. 邵毓麟은 7월 12일 외교부를 통해 蔣介石에게 올린 전문에서 중화민국의 파병원조에 대해 이승만이 매우 감격해하였지만, “한국전쟁은 이제 유엔이 제재하는 침략전쟁이 되어 모든 것을 맥아더 원수의 결제를 기다려야 한다.”면서 “한국의 병력은 충분한데 단지 대포나 비행기 전차가 필요할 뿐이다. 만약 미군 또는 유엔군이 북한으로 진공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국부군의 원조를 희망한다.”고 했다.

관한 협상 요점을 정하였는데, 그 중 국부군의 참전문제에 대해, “이를 우리가 다시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지만 만약 미국 측에서 문의해온다면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군대와 무기에 대해 참모총장이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결정했다.”<sup>27)</sup> 이는 중화민국 정부가 이미 한국파병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로 하였음을 보여준다.

蔣介石 개인에게 있어서 유엔 또는 미국이 국부군의 6·25전쟁 참가를 거부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다. 그는 1950년 9월 국민당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이러한 견해를 공개적으로 나타냈다. 즉 “우리는 동아시아의 문제를 동아시아인 특히 중국이 참가하지 않고서 결코 그리 쉽게 해결할 수 없다고 믿는다. 특히 동아시아에서의 전쟁에 만약 동아시아의 군대가 참전할 수 없다면 틀림없이 힘만 많이 들고 효과는 적을 것이니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닐 것이다.”<sup>28)</sup>

蔣介石은 또 현재의 유엔군이 승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전쟁이 발생하자 나는 즉시 中日韓 삼국이 함께 연합군을 조직하여 미국의 통솔지휘 아래 북한괴뢰의 침략을 제재하는 임무를 맡는 동아시아 반공동맹군을 제창했다. 나는 만약 이 연합군이 조직되면 현재 유엔이 한국에 파견한 군대보다 훨씬 강력해서 북한공산정권을 반드시 평정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유엔이 이 점을 보지 못하고 나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 때문에…… 동아시아의 군대를 동아시아 전장에 동원하는 것이 구미의 군대가 동아시아에 와서 작전하는 것에 비해 최소 2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소련은 아시아의 공산당을 동원하여 아시아를 침략하는 도구로 삼고 있다. 그런데 유엔은 왜 아시아 국가의 군대를 동원하여 소련의 아시아 침략을 막고 아시아에서의 소련의 제5열을 소멸시키지 않는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알지 못하겠다. 앞으로 한국에서의 전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예견하기

27) 『蔣中正總統檔案』, 『特交檔案分類資料-美政要來訪』, 檔號080106, 第056卷, 編號08A-01711.

28) 『對當前國際局勢應有的認識』, 『總統蔣公思想言論總集』 卷23 演講, 392쪽.

어렵지만 내가 감히 단언하건데, 현재의 유엔처럼 여러 나라에서 온 복잡한 군대로 북한공산군과 싸워 완전한 승리를 거둘 희망은 매우 적으며, 이런 식으로는 전쟁을 종식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sup>29)</sup>

1950년 11월 초 중국인민해방군의 6·25전쟁 참전이라는 정세 변화로 인해 蔣介石은 국부군의 파병 문제를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6·25전쟁이 발발했던 4개월 전과 비교해서 그의 태도에 분명한 변화가 있었으니 한국파병을 반공대륙과 연계시키고자 한 점이였다. 11월 7일 蔣介石은 “미국이 만약 우리에게 파병을 요청한다면 나는 우리 군대가 東北(즉 滿洲)으로 진공하는데 미국이 찬성하는지 분명히 문의할 것이다”<sup>30)</sup>라고 적고 있다. 9일 何世禮를 접견하고 맥아더의 태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다음 “만약 그가 우리에게 한국파병을 다시 요구하면 이전에 논의했던 대로 진행하되, 그 전에 반드시 미국이 우리의 반공대륙을 저지하겠다는 자신의 선언을 철회하는 것이 자연스런 이치일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sup>31)</sup>

蔣介石의 이러한 태도는 전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더욱 강화되었다. 12월 1일 蔣介石은 何世禮에게 전보를 보내, 한국전에서의 유엔군의 패배를 매우 걱정하고 있으며 만약 중국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성의를 다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맥아더 원수에게 전하도록 했다. <sup>32)</sup> 4일 蔣介石은 이승만에게도 전보를 보내 공동의 목적을 위해 분투할 결심을 표하면서, “유엔의 민주자유 진영 중에는 아직도 과거의姑息정책이 충분치 못하다고 여기고 적과의 타협과 굴복을 계속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 정부는 결단코 이에 반대하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의 공동목적을 위해 분투하여 마지막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라고 피력했다.<sup>33)</sup> 이달 8일 蔣介石은 미국 ABC 방송 뉴스 논설위원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국부군의 반공대륙

29) 『對當前國際局勢應有的認識』, 『總統蔣公思想言論總集』 卷23 演講, 393쪽.

30)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卷9, 291쪽 11월 7일.

31)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卷9, 292쪽 1950년 11월 9일.

32)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卷9, 306쪽 1950년 12월 1일.

33) 『蔣中正總統檔案』, 『特交檔案分類資料-對韓國外交』, 檔號080106, 第069卷, 編號08A-01772.

이 6·25전쟁에서 유엔군의 압박을 경감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나는 유엔 해·공군의 협력 하에 臺灣의 육군이 반공대륙 작전을 펼친다면 대륙에 있는 150만 유격대의 호응을 얻을 수 있고 현재 중공의 통제를 받고 있는 많은 부대 역시 우리 측으로 넘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경정권의 기초가 흔들리게 될 것이고 한국의 정세도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답했다.<sup>34)</sup>

그러나 6·25전쟁에 중화민국 군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미국정부의 정책은 이(중공군의 참전)로 인해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12월 14일 동경에서 맥아더를 회견한 董顯光과 何世禮가 “미국은 아시아의 맹방을 이용해 소련의 위성국가와 전쟁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맥아더는 “3주 전 내가 6만명의 중국군대(국부군)를 한국에 파견하는 일을 蔣위원장과 상의할 권한을 국방부에 요청했을 때 아직 시기상조라는 회답을 들었다.”라고 대답했다. 何世禮가 “이번 전쟁에 중국군대를 동원할 것인가”라고 묻자, 맥아더는 “결코 없을 것이다. 유엔이 반대할 것이고 미국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맥아더는 蔣介石과 중화민국 정부의 한국파병에 대한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담이 끝난 후 특별히 董顯光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蔣介石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돌아가서 蔣위원장에게 어떠한 행동을 해서도 안 되며 어떤 의견을 발표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해주시오. (반공대륙의) 기회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때에는 중국정부가 한국의 정세에 대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어떤 의견도 밝히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중국이 세계대전을 도발하려 한다는 국제 여론이 형성될 것이고 그러면 중국에 도리어 불리하게 될 것입니다.”<sup>35)</sup>

1952년 9월 중화민국 군대가 6·25전쟁에 참가할 것이라는 소문이 외부에서 떠돌자, 이승만은 같은 달 23일 중화민국 주한대사 王東元을 불러 “이

웃 나라가 전쟁에 협조해주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지만 한국은 자유중국 이 대륙에 대한 공세를 발동하여 적을 견제해서 한국전쟁에서 공산군의 압박을 경감시켜주길 바랄 뿐이다. 또 적과의 전쟁은 절대적인 성공 가능성이 있기를 기다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위험을 무릅쓰는 모험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외무장관은 국부군이 참전해서 전방에 중국인이 나타나면 적군(중공군)으로 단정하게 되어 작전에 혼란을 불러올지도 모르고, 미국이 아시아의 전쟁은 아시아인끼리 해야 한다는 핑계로 부분 철군 준비를 할지도 모른다고 더욱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sup>36)</sup> 다시 말해 한국 측 역시 중공군의 참전으로 인해 중화민국 군대의 파병을 상당히 꺼리고 있었다.

10월 15일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 래드포드(Arthur W. Radford)가 臺灣을 방문하여 다음날 蔣介石을 예방했다. 蔣介石의 기록에 의하면 래드포드는 대화 중 국부군의 한국전 참전 문제에 대해 그와 의견을 교환했다. 래드포드는 국부군 2개 사단의 병력을 한국전에 참가시킬 수 있는지 문의했고, 蔣介石은 1개 사단 병력 파견에만 동의하고 나머지 1개 사단은 예비대로 臺灣에서 훈련시켜 전선에 투입된 사단과 교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래드포드는 또 중국정부가 미 해군의 편리를 위해 먼저 海南島의 남부를 수복할 것을 희망하였으나 蔣介石은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 여겨 완곡하게 거절했다.<sup>37)</sup> 래드포드의 발언은 마치 6·25전쟁에 중화민국 군대를 동원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정책에 변화가 있으며 제2의 전선을 열어 국부군이 海南島로 진공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11월 5일 발표된 미국 대선 결과,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와 닉슨(Richard M. Nixon)이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에 蔣介石은 만약 미국이 국부군의 6·25전쟁 참전을 요구할 경우 대응할 방

34) 『自由中國與韓戰之關係』, 『總統蔣公思想言論總集』卷38 談話, 269쪽.

35) 『蔣中正總統檔案』, 『特交檔案分類資料-美政要來訪』, 檔號080106, 第056卷, 編號08A-01712.

36) 『蔣中正總統檔案』, 『特交檔案分類資料-對韓國外交』, 檔號080106, 第069卷, 編號08A-01772.

37) 秦孝儀總編纂,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卷11(臺北:財團法人中正文教基金會, 2004. 12), 257쪽 1952년 10월 16일.

안을 다시 깊이 생각하고 과병 조건을 “臺灣의 방어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중미공동방어계획을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그 나머지는 네 가지로 정했다. 즉 첫째, 적극적인 공세로 진지전을 타파한다. 둘째, 중도에 타협하지 않는다. 셋째, 제3세력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 넷째, 우리의 내정과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었다.<sup>38)</sup>

17일 蔣介石은 한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국부군의 참전을 요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좀 더 정확히 알기를 희망했다. 즉 “첫째, 반공대륙의 여부? 둘째, 반공대륙의 목표는? 셋째, 공산군을 격퇴해서 한국 국경에서 내쫓을 것인지, 아니면 한정된 방어진역(38선)까지만 진공할 것인지? 넷째, 우리 군에게 적진 후방의 상륙작전을 맡길 건지, 아니면 단지 현지의 방어력만 증강하여 여전히 수세를 취할 것인지? 다섯째, 만주 폭격을 할 것인지의 여부 등 그 임무를 분명히 해야지만 과견병력의 규모를 연구할 수 있다”고 하고 동시에 “제2의 전선을 열어 ‘반공대륙’함으로써 적군이 두 군데 이상에서 응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39)</sup>

하지만 미국의 臺灣 주재 외교관과 군사고문들이 그때까지 중국정부 측에 한국과병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蔣介石은 이 일에 대한 대응에 매우 신중을 기했다. 그는 같은 달 26일 미국에 있는 宋美齡에게 보낸 전보에서 이 점을 언급하면서 말하길 “미국의 臺灣 주재 외교 및 군사 관계자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한국과병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측도 미국의 과병불가 원칙에 답할 길이 없습니다. (이를 보아) 미 국무부의 보고가 과거와 같이 날조된 것이며 전적으로 중·미 양국의 감정을 도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당신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군대의 한국과병에 대한 일반 기사 혹은 통상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 과병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주동적으로 한국과병을 다시 요청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이 일에 대

38)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卷11, 272쪽 1952년 11월 13일.

39)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卷11, 276쪽 1952년 11월 17일.

해 나는 이미 葉公超 외교부장에게 대체적인 방침을 직접 지시하였고 시종 일관 변함이 없으니 (자세한 내용은) 그에게 문의하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일기에다 “집사람에게 답전을 보냈다. 지금은 침착하게 조용히 사태를 관망해야지 외부 사람들이 전하는 말에 동요해서는 안 되며, 능히 自立自主해야지 타인의喜怒에 따라 움직여 자신의 기본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 일은 葉公超와 상의하되 내가 지시한 방침은 변경할 수 없으니 입장을 굳게 갖고 복잡다단한 외교 방법과 작용을 반드시 주지해서 사람들의 말 때문에 정책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적고 있다.<sup>40)</sup>

28일 외교부장 葉公超는 기자들에게 “만약 한국에서 심각한 전쟁이 진행되고 그 전쟁에 확정된 목적이 있다면 중국정부는 언제든지 인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sup>41)</sup> 그러나 미국의 새 정부에 대해 비교적 높은 기대를 분명 갖고 있었던 蔣介石은 11월 29일 臺灣을 방문한 ‘라이프(Life)’지 편집장 헨리 루스(Henry Luce)를 초대한 연회석상에서 “미국 새 정부가 소련이 중공을 원조하는 것처럼 국부군이 반공대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희망하며, “한국전쟁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국부군이 반공대륙하는 것밖에 없다”고 표명했다.<sup>42)</sup>

1952년 12월 7일 蔣介石은 한국에서 막 臺灣으로 돌아온 미국 軍事援華顧問團 단장인 체이스(William C. Chase)를 접견하고 그가 한국에 가서 아이젠하워와 회담한 경과를 청취했다. 蔣介石의 일기 내용을 보면 체이스가 대화 중에 국부군의 한국과병을 희망하는 미국 측의 의사를 전달했음이 분명했다.<sup>43)</sup> 다음날 蔣介石은 정례 군사회의를 주관하면서 한국 전장의 지

40)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卷11, 280쪽 1952년 11월 26일.

41)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卷11, 280~281쪽 1952년 11월 26일.

42)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卷11, 283~284쪽 1952년 11월 29일.

43)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卷11, 285~286쪽 1952년 12월 7일. 蔣介石은 일기에 “내가 만약 그에게 臺灣에는 防空을 충실히 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트기 1개 대대도 온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면 한국과병문제를 논의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이에 근거하면 체이스는 보고하면서 한국과병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다.

도를 연구하였고, 그 후 며칠 동안 일기에도 한국과병을 고려한 내용을 적고 있다. 즉 9일에는 한국과병 방침으로 “첫째, 3개 군의 병력을 한국전에 투입, 적의 배후에 상륙시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둬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제고시키고 동시에 반공대륙의 길을 열어 아시아의 공산세력을 제거하는 계기로 삼는다. 둘째, 1개 군단만 파병하여 결전에 협조하고 전쟁이 일단락되면 모두 철수시키거나 1개 사단 이하의 병력만 한국에 남겨둔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sup>44)</sup> 10일에는 미국과의 교섭 요령을 적으면서 그중 하나로 “한국과병과 반공대륙 방안을 동시에 토론하고 해결한다.”고 하였고,<sup>45)</sup> 16일에는 반공대륙의 병력과 경비 준비 등을 기록했다.<sup>46)</sup>

1953년 1월 유엔 제7차 총회 참석 차 미국으로 출국하였던 외교부장 葉公超가 귀국했다. 葉公超는 미국 체류기간동안 아직 정식 취임하지 않은 미국의 신임 대통령 아이젠하워 및 국무장관 덜레스(John F. Dulles) 등 미국 지도층을 방문했다. 蔣介石은 葉公超가 올린 아이젠하워와 덜레스 등과의 회담경과 보고를 읽고 나서, 미국 측이 국부군의 한국출병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국부군의 海南島 수복을 반공대륙보다 더 희망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sup>47)</sup> 하지만 국부군을 동원하여 海南島를 수복하는 일은 蔣介石이 반대하는 바였다. 미국 측이 국부군의 海南島 수복을 반공대륙보다 더 희망하는데 반해 蔣介石은 국부군의 한국과병을 통해 반공대륙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희망하는 등 양측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음으로써 국부군의 한국과병 주장은 정전담판이 진행됨에 따라 자연히 사그라들게 되었다.

44)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卷11, 286쪽 1952년 12월 9일.

45)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卷11, 286쪽 1952년 12월 10일.

46)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卷11, 292쪽 1952년 12월 16일.

47) 秦孝儀總編纂,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卷12(臺北:財團法人中正文教基金會, 2005. 12), 21쪽 1953년 2월 1일.

#### 4. 蔣介石의 정전담판 조정

1953년 1월 蔣介石은 이승만의 臺灣 방문 의사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묻는 주한대사 王東元의 보고를 받았다.<sup>48)</sup> 이에 대해 蔣介石은 총통부 비서장 王世杰과 외교부장 葉公超에게 지시를 내려 정부차원에서 환영의 뜻을 빨리 밝히도록 했다.<sup>49)</sup> 5월 14일 蔣介石은 귀국보고를 마치고 막 臺北에 귀임한 주중 한국대사 金弘一을 접견하고 직접 이승만의 訪中을 환영한다는 뜻을 표하였는데, 蔣介石은 그의 방중이 “한국 정국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sup>50)</sup>

이 당시 남한과 미국은 정전문제로 인해 각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었는데, 남한 측은 정전을 반대하였던 반면 미국은 6·25전쟁을 종결하는 최우선 조건으로 정전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국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있었다. 蔣介石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남한 측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앞날을 위해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이에 그는 6월 7일 아이젠하워에게 전보를 보내 미국정부가 6·25전쟁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첫째, 마땅히 유엔이 한국을 위해 정한 목표를 엄격히 견지해서 하나의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 한국을 건립해야 한다. 둘째, 한국전쟁이 설령 종식되더라도 미국은 도의적·군사적 협조를 통해 한국을 공동 방어하여 위 유엔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대한민국의 안전을 계속 보장하길 원해야 한다. 셋째, 휴전 후의 정치회의에 대해서 미국정부는 유엔군 사령부를 대표하여 정전담판에 참가한 인사의 발언을 준수하여 절대로 한국 이외의 문제와 관

48) 『蔣中正總統檔案』, 『特交檔案分類資料-對韓國外交』, 檔號080106, 第069卷, 編號08A-01772.

49)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卷12, 17쪽 1953년 1월 25일.

50)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卷12, 110쪽 1953년 5월 14일.

런되게 해서는 안 된다.” 또 극동문제에 대해 “지금 미국정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아시아의 반공국가, 특히 현재 소련 및 중공의 직접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를 원조하여 그 자위력을 더욱 증강시켜야 하며, 아울러 미국이 장차 양자 또는 다자 간 형식으로 먼저 이들 국가와 안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전 극동 반공국가의 大同盟을 차츰 완성하여 태평양과 극동 평화의 기초를 확립할 것임을 더욱 명백히 선언해야 할 것 같다.”<sup>51)</sup>

이어 9일 蔣介石은 김홍일을 접견하고 “중한 양국은 어려움 속에서 일심협력하는 형제 나라로 한국의 통일과 자유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나의 모든 힘을 반드시 다할 것이고 맹세코 한국과 存亡·患難을 함께 하는데 추호도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직접 설명”하면서 이러한 자신의 뜻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해줄 것을 당부했다.<sup>52)</sup>

蔣介石은 한·미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거듭 심사숙고한 끝에 21일 ‘한·미간의 협조와 정전문제 해결에 대한 건의 초안’을 기초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이 천천히 신중하게 고려할 사안이라 판단하여 일단 공개하지 않고 아이젠하워에게 다시 전보를 보내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蔣介石은 22일자 일기에 아이젠하워에게 재차 전보를 보내기로 한 이유에 대해 “앞서 보낸 전보의 답신 발송여부에 대한 나의 질문과 현재의 상황 때문에 그는 나의 태도에 주의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지금 이승만의 처지로는 실패했을 때 갈 수 있는 마지막 피난처가 오직 우리 자유중국밖에 없다. 그런 이유로 아이젠하워에게 다시 전보를 보내 그가 좀 더 인내하길 권고하고 그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권한을 운용하여 때를 놓치지 않고 즉시 결단을 내려 반드시 정전협정 타결 이전에 한국과 상호안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자유를 영도하고 反共을 扶助하는 미국에 대한 전 세계 약소민족의

믿음을 굳게 하고 한국전쟁 종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라고 적었다.<sup>53)</sup>

다음날 蔣介石은 이러한 뜻을 담은 전보를 정식으로 아이젠하워에게 보냈다. 즉 “제가 전에 보낸 전보에서 말한 대로 만약 미한공동안전조약을 즉시 체결한다면 자유국가의 일치단결에 不朽의 공헌이 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요구가 즉시 당신의 과감한 결단 하에 정전협정이 서명되기 전에 체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날로 긴장되는 조선(한국)의 정세를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신념을 강화시켜 각하의 영도 하에 세계 약소국가들이 자유를 지키고 노예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고 믿게 할 것입니다.”<sup>54)</sup>

6월 26일 蔣介石은 미 국무장관 덜레스의 명령으로 주중 임시 대리공사 존스(Jones)가 전달한 미국정부의 한국문제에 관한 정책을 받아 보았다. 즉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서의 미군의 무기한 작전을 애써 도모하고 있지만 이 일은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만약 현재의 입장을 견지한다면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 총사령부의 철수라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이럴 경우 한국(전쟁)의 책임을 이 대통령의 건의대로 장차 대한민국 군대가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것이 한국에 불행한 일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정전을 거절하고 자신의 군대를 유엔군에서 탈퇴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실로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저에게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한 후 남한 군대가 겪게 될 군사적 참극은 결과적으로 틀림없이 자유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다시 고려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도록 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의 한국 위기를 순조롭게 해결하는 데 있어 중·미 양국의 이해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현

51) 『蔣中正總統檔案』, 『特交檔案分類資料-對韓國外交』, 檔號080106, 第070卷, 編號08A-01779. 『蔣中正總統檔案』에도 이 전보가 수록되어 있다.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所譯, 『顧維鈞回憶錄』, 第10分冊(北京:中華書局, 1989.9), 142~143쪽. 다만 『顧維鈞回憶錄』에 실린 電文은 번역문이어서 蔣介石의 原稿와 문장의 의미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

52)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卷12, 122쪽 1953년 6월 9일.

53)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12, 128쪽 6월 22일.

54) 『顧維鈞回憶錄』, 第10分冊, 566쪽. 顧維鈞은 이 전보의 내용이 “관점과 당시 형세에 대한 이해에 있어 칭찬할 만하지만”, 총체적으로 말해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미국정부의 처지는 더욱 복잡하였다고 생각했다. 『顧維鈞回憶錄』, 第10分冊, 157쪽.

재 취하고 있는 입장이 유감스러운 결과를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특별히 각하게 알려드립니다.”<sup>55)</sup>

蔣介石은 이에 대해 심히 잘못되었다고 여기고 즉시 다음날 顧維鈞에게 전보를 보내 구두 형식으로 델레스에게 아래의 입장을 밝히도록 당부했다. “나는 한국 정세의 심각함을 감안하여 최근 두 차례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전보를 보냈다. 나의 희망은 약소민족의 지위가 끝내 힘센 침략자에게 희생됨으로써 모든 약소민족에 대한 미국의 영도와 위신에 손상이 가고, 침략자의 또 다른 전쟁 도발을 고무하여 제3차 인류의 재앙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두 차례 전보를 보낸 동기인데, 만약 나의 진실된 건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지극히 유감스러운 것이다.”<sup>56)</sup> 이 일에 대해 蔣介石 역시 일기의 ‘지난주 반성록’에다 다시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이번 주는 한국의 정전과 미한관계 악화 두 가지 일에 거의 모든 성의를 다해 그 운용에 효과가 있길 기대했다. 먼저 기자들에게 발표할 긴 의견서를 직접 작성하였으나 발표하지 않았고, 나중에 아이젠하워에게 보낼 두 번째 전보 문안을 초안하여 정전 이전에 반드시 한국과 공동안전협정을 체결하여 정전의 장애물을 제거하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미 국무장관 델레스가 갑자기 위협적인 태도로, 미국의 對韓정책이 전쟁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 혼자서 작전하도록 내버려 두기로 결정되었으며 우리 臺灣에 대해서도 그 정책을 바꾸겠다고 위협해왔다. 그 의도는 바로 내가 미국의 결정을 한국에 전달하여 이승만으로 하여금 정전조건에 굴복하도록 하는데 있으니 정말로 가증스럽다. 이 때문에 델레스에게 반격하지 않을 수 없어 엄정한 경고를 보냈으니 앞으로 그의 태도가 어떻게 지켜보겠다.”<sup>57)</sup>

29일 蔣介石은 6월 7일 보낸 편지에 대한 아이젠하워의 답신을 받아보았

다. 이 편지에서 아이젠하워는 蔣介石이 제시한 6·25전쟁 문제에 관한 세 가지 건의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만약 한국에서 영광스러운 정전을 달성한다면 공산주의가 그 불행한 나라에서 행한 무력침략을 지지한다는 유엔이 정한 군사목표를 이미 완성하게 되는 것이며, 미국은 앞으로도 유엔이 한국을 위해 정한 정치목표 즉 하나의 통일된 독립민주국가 건립을 계속 지지할 결심입니다. 둘째, 우리는 앞으로 유엔 및 다른 경로를 통해 대한민국이 그 행복과 안전을 유지하도록 협조함으로써 유엔의 정치목표를 축성할 것입니다. 셋째, 한국전쟁 정전 후 열리는 정치회담에 관해 현 단계에서 그 토론 범위를 확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런 회담이 중화민국의 완전성과 안전문제를 토론하는 자리가 되지 못하게 할 결심입니다.”<sup>58)</sup>

아이젠하워의 답신에 대해 蔣介石은 “그 표현은 비교적 부드럽지만 그 내용은 델레스가 일전에 보낸 위협적인 뜻과 다름이 없다. 저들은 우리 중국과 동방민족을 한마디로 ‘열등하고 천한 종족’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sup>59)</sup> 아이젠하워와 델레스의 편지를 통해 蔣介石은 회담의 진행이 결렬될 수도 있음을 매우 걱정하였지만 이 위기를 전환시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단지 “한국의 이승만을 위해 아침저녁으로 하느님께 한국이 위기에서 벗어나 그 통일 자유와 평등 독립의 목적을 달성하고 공산 소련의 침해를 받지 않는다면 다행이라고 기도할”뿐이었다.

이때 미국 측은 정전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와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국무부 극동사무 차관보 로버트슨(Walter S. Robertson)을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개인특사 신분으로 파견했다. 6월 25일 한국에 도착한 로버트슨은 26일부터 이승만과 회담을 시작하여 그를 설득해서 정전 반대 의 입장을 바꿀 수 있기를 희망했다.<sup>60)</sup> 그러나 회담은 시작되자마자 양측

55) 『蔣中正總統檔案』, 『特交檔案分類資料-對美國外交』, 檔號080106, 第033卷, 編號08A-01575.

56) 『蔣中正總統檔案』, 『特交文電』, 『革命外交-對美關係』, 檔號090103, 第007卷, 編號09A-00325.

57)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卷12, 134쪽, 1953년 6월 27일, 上星期反省錄.

58) 『蔣中正總統檔案』, 『特交檔案分類資料-對美國外交』, 檔號080106, 第030卷, 編號08A-01565.

59)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卷12, 135쪽 1953년 6월 29일.

이 각기 자기주장을 견지함으로 인해 한동안 교착상태에 빠지고 말았다.<sup>61)</sup> 아이젠하워와 델레스가 보낸 편지 및 顧維鈞이 델레스를 만난 다음 보고한 내용이 전하는 미국 측 소식을 통해<sup>62)</sup> 蔣介石은 회담의 진행이 결렬될 수도 있음을 매우 걱정하였지만, 이 위기를 전환시킬 뾰족한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단지 “한국의 이승만을 위해 조석으로 하느님께 한국이 위기에서 벗어나 그 통일 자유와 평등 독립의 목적을 달성하고 공산 소련의 침해를 받지 않는다면 다행이라고 기도할”뿐이었다.<sup>63)</sup>

7월 1일 蔣介石은 주중(화민국) 미국대사 랜킨(Karl Rankin)을 접견한 자리에서 본인이 이승만을 부추겨 정전협정의 체결을 방해하고 있다는 미국무부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6·25전쟁 정전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태도를 설명했다. 아울러 ‘성경’ ‘마태복음’ 18장 6절을 인용하여 미국이 약 소민족을 압박해서 그 자신이 물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경고했다.<sup>64)</sup>

다른 한편 蔣介石은 정전문제에 대해 미국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구할 게 아니라 한국 측도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승만에게 다음과

60) 周琇環編, 『戰後外交史料彙編-韓戰與反共義士篇(1)』(臺北: 國史館, 2005.5), 72~75쪽.

61) 周琇環編, 『戰後外交史料彙編-韓戰與反共義士篇(1)』, 47쪽.

62) 顧維鈞은 6월 29일 새벽 델레스를 만나 구두로 蔣介石의 성명을 전달했다. 델레스는 회담 중 이승만에 대한 불만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표시했다. 즉 “남한의 이승만은 자유국가 일지단결해서 공산침략자를 응징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하였는데, 현재는 도리어 이러한 단결을 파괴하고 단독 행동을 하고자 하니 자살정책이나 다름이 없다. 미국의 새 정부는 아시아를 중시할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아시아 각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증가시켜 적극적인 공동 반공을 진행함으로써 아시아를 지키고자 한다. 지금 이승만이 만약 자기 뜻대로만 밀고나간다면 한반도를 상실하게 될 것이고, 이는 미국의 대외정책 실패를 초래하게 됨으로 미국정부는 아시아와 대만에 대한 정책을 다시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철수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더욱 그 정책을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蔣中正總統檔案』, 『特交檔案分類資料-對韓國外交』, 檔號080106, 第070卷, 編號08A-01779.

63)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卷12, 137쪽 1953년 6월 30일.

64)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卷12, 139쪽 1953년 7월 1일. ‘마태복음’ 18장 6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아들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고 되어있다.

같이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이승만에게 미국이 정전 이후에 대한 어떤 확실한 보장만 해주면 로버트슨(Walter S. Robertson)과의 회담에서 큰 골격의 합의만 추구하고 기타 세부적인 것은 너무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그 다음 미국이 이미 석방한 (반공) 포로 회수를 (한국에) 요구하지만 않는다면 바로 정전에 동의해서 한국정부가 정전을 방해한다는 구실을 주지 말고 공산당이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만약 한국정부가 정전을 지지하고 미국이 석방 포로 회수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공산당이 반드시 정전에 반대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한국이 만약 정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석방 포로를 회수할 수 없더라도 공산당은 반대로 미국과 정전협정을 체결해서 한국정부가 정전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배제하려 들 것이다.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음모를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알린다.”고 결정했다.<sup>65)</sup>

그리고 같은 날 王東元에게 전보를 보내 이승만에게 미국과의 담판을 결렬시키지 말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전하도록 했다. 즉 “한국 정세와 관련하여 즉시 이승만 대통령을 예방하기를 바란다. 예방시 나의 電습을 받고 찾아왔음을 밝히고 다음 세 가지 점을 자세히 설명하라. 첫째, 나와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여러 차례 전보를 주고받으면서 한국 정세에 대해 상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나는 아이젠하워에게 최대한의 결심과 인내를 갖고 이 대통령과 합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 바 있다. 단 이 점 대외비로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하라. 둘째, 이 대통령에게 로버트슨이 제의한 내용과 담판 경과 및 가장 큰 쟁점을 알려줄 수 있는지 문의하라. 셋째, 이 대통령에게 극도의 인내심을 갖고 로버트슨 및 미국과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 어쨌든 상황을 결렬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려라.”<sup>66)</sup>

(7월) 2일 蔣介石은 6월 23일자 편지에 대한 아이젠하워의 답신을 받아 보았다. 답신에서 아이젠하워는 蔣介石이 건의한 미한공동안전협정 체결 건

65)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卷12, 138~139쪽 1953년 7월 1일.

66) 『蔣中正總統檔案』, 『特交檔案分類資料-對韓國外交』, 檔號080106, 第069卷, 編號08A-01772.

에 대해 “유엔의 충실한 일원인 미국은 한국인의 미래 행복과 안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찍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적당한 상황 하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공동안전협정을 맺기를 원하며 이러한 협정은 반드시 상호 양해와 협력에 기초하고 공동의 목표를 완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책임분담의 효력을 거둘 수 있다고 표명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삼가 각하께서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설령 공동안전조약을 체결하더라도 전혀 의의가 없으며 실행하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에 대한 보장이 실로 이 조약을 체결하는 선결조건이 될 것입니다”라고 의견을 표시했다.<sup>67)</sup> 蔣介石은 한·미간에 협력이 되지 않는 원인을 이승만에게 돌리려는 아이젠하워의 태도에서 양국 간의 교착상태가 여전히 풀리지 않았음을 알고 매우 걱정스러웠으나 “지금까지 나는 더 이상의 어떤 행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기력을 다하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sup>68)</sup>

7월 7일 蔣介石은 王東元이 이승만을 예방한 후 작성한 보고서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이승만이 대화 중 한미회담의 가장 큰 쟁점은 한국이 정전 후 열릴 정치회담의 기한을 정할 것을 주장하고 정치회담 이후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며, 그 외 한국 측이 아직 구금되어 있는 8,000명의 한국인 반공포로의 석방을 요구하고 중립국의 한국 파병을 반대하는 문제 등도 아직 합의되지 못했음을 설명하였다고 했다. 공동안전협정 문제에 관한 王東元의 질문에 대해서 이승만은 이 협정은 미국이 제의한 것으로 한국이 추구하는 것은 목전의 생존과 통일의 구체적인 보장이지만 미래의 안전이 아니라고 답하였다고 했다. 또 王東元은 미국의 정전담판 처리방식에 대해 이승만이 매우 불만스러워 하였다면서, “미국은 원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으나 소련과의 충돌이 두려워 중도에 타협함으로써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의 약소국가를 희생시키고 일시적인 안일을 도모하

67) 『蔣中正總統檔案』, 『特交檔案分類資料-對美國外交』, 檔號080106, 第033卷, 編號08A-01576.  
68)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卷12, 142쪽 1953년 7월 4일.

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하(蔣介石)와 자신이 함께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미국의 정책이 정말 이와 같은지, 만약 아시아 각국이 소련에 정복된다면 미국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문의하여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미 당국의 명확한 답변을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sup>69)</sup>

蔣介石은 이승만이 ‘목전의 생존과 통일의 구체적인 보장’을 견지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감복하면서 (이를 통해) 한·미간의 교착관계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그날 일기에 “이에 그가 통일생존 방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이렇게 줄곧 고수하는 목적이 정전 이후의 보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美韓 공동안전협정에 개의치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의 견해와 정신은 정말 감복할 만하니 오직 조석으로 그를 대신하여 하느님께 그가 능히 주장을 관철하여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묵묵히 기도할 뿐이다”라고 적었다.<sup>70)</sup> 그리고 당일 그가 주재한 선전회의에서도 한국의 정전문제를 논의하였는데, 이에 대해 일기에 “한국정부가 정전 반대정책을 끝까지 고수하기 때문에 한국전쟁은 장기간 연장되어 억지로 중지시킬 수 없는 추세다”라고 적고 있다.<sup>71)</sup>

11일 蔣介石은 귀국보고를 위해 다음날 귀국 예정인 체이스를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의 정전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특별히 그에게 미 제7함대 사령관 클라크(Joseph J. Clark)와 정부 당국에 만약 중공에게 다시 약점을 보인다면 정전은 틀림없이 실패하고 말 것이지만, 강경자세로 바꾸고 이승만의 의견을 많이 수용해서 먼저 내부 통일을 이룰 수 있다면 정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sup>72)</sup>

7월 12일, 마침내 이승만과 로버트슨은 2주간에 걸친 회담과 교착상태 끝에 정전 후 전쟁포로 석방과 정치회의 및 한미 양국의 공동방위조약 체

69) 『蔣中正總統檔案』, 『特交檔案分類資料-對韓國外交』, 檔號080106, 第069卷, 編號08A-01772.  
70)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卷12, 143쪽 1953년 7월 7일.  
71)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卷12, 143~144쪽 1953년 7월 7일.  
72)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卷12, 147쪽 1953년 7월 11일.

결 등의 문제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를 이루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sup>73)</sup> 이에 대해 蔣介石은 매우 기뻐하고 안도하였으니 필경 그가 담판 과정 중에 상당한 정신과 정력을 소모하면서 한미 양측을 중재하고 의견차를 조정 한 결과였기 때문이었다.<sup>74)</sup>

다음날(13일) 蔣介石은 革命實踐研究院 建黨問題研究會 研究員 수료식 연설에서 이 일에 대해 “미국과 한국 사이에 양해가 이루어진 것은 민주국가들에게 있어 실로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새롭게 단결을 획득한 것이니, 이것이 반공진영과 반공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너무나도 크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승만의 행동은 “비장함이 넘쳐나고 정의를 위해 뒤돌아보지 않고 용감하게 나아가는 거동”이며, “미국 조야에 동방민족성을 가일층 각인시켜 결국 미·한 간에 유력한 합의를 이루게 함으로써 민주진영의 단결을 파괴하고 고립과 대립을 조장하려는 적의 기량에 엄중한 반격을 가한 것!”이라고 추켜세웠다.<sup>75)</sup>

## 5. 맺 음 말

1950년 6월 발생한 6·25전쟁은 국제적인 큰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臺灣으로 옮겨온 지 겨우 반년밖에 안된 중화민국 정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蔣介石은 중화민국 총통으로서 6·25전쟁 발생에 대한 개인적 인

73) 『聯合報』, 1953년 7월 13일, 제1면.

74) 蔣介石은 1954년 1월 19일 일기에 “달레스가 전보를 보내 작년 미한 간의 충돌이 있었을 때 내가 이승만에게 화해를 권고한 전보 원고를 로버트슨으로부터 전해 받고, 당시 그가 나에게 보낸 위협적인 전보가 도리에 맞지 않았음을 깊게 느끼고 부끄러움과 감사함을 표하였지만 사과는 하지 않고 단지 내가 미국의 믿을 만한 친구라 여긴다고 말하였다”고 적고 있다. 이는 이승만이 회담 중에 蔣介石의 전보를 로버트슨에게 보여주었고 로버트슨이 또 이를 달레스에게 전보로 보냈기 때문이다.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13, 未刊稿.

75) 『總統蔣公思想言論總集』卷25 演講, 296쪽.

식을 갖고 있었다. 그는 6·25전쟁이 소련의 배후조정에 의해 일어난 것이며, 아시아에 대한 서방 민주국가의 정책 실패이기 때문에 유엔과 서방 민주국가가 조속히 6·25전쟁을 종결시키고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엄정한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인식했다. 즉 “첫째, 소련 제국주의자가 한국 침략의 주범이며, 따라서 침략전쟁 발동의 책임을 져야함을 정당당당히 지적하고, 아울러 그로 하여금 북한괴뢰의 한국 공격을 중지시켜야 한다. 둘째, 유엔과 서방 민주국가가 아시아인의 마음을 수습하고, 아시아의 역량을 단결시켜서 그들과 함께 반공전쟁에 나서고자 한다면 반드시 세계평화가 분할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여 (유럽과 아시아를 함께 중시하는) 歐亞並重 정책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sup>76)</sup>

蔣介石은 유엔회원국의 남한 파병 통지를 받은 후 ‘反共’이란 전제 하에 즉시 3개 사단 약 3만 3,000명의 육군을 파견하여 유엔군에 참가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한국파병 계획은 미국정부의 다방면에 걸친 신중함 고려 때문에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蔣介石은 국부군을 6·25전쟁에 참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며, 동아시아 국가의 군대가 참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엔군은 승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1950년 11월 중국군 참전이라는 정세 변화를 맞아 蔣介石은 다시 국부군의 한국파병 문제를 심각히 고려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6·25전쟁 발발 초기와 비교했을 때 한국파병을 ‘反攻大陸’ 하는 문제와 연계시킨 점에서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그는 국부군의 반공대륙이 한국 전장에서 유엔군이 받고 있는 압박을 경감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을 통해 맥아더에게 국부군의 전쟁 투입 가능성 여부를 탐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전에서 중화민국 군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미국정부의 정책이 중공군의 참전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파병 계획

76) 『總統蔣公思想言論總集』卷23 演講, 322쪽.

은 또 다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 후 1952년 10월 미태평양함대사령관 래드포드가 방중하였을 때, 국부군 2개 사단의 한국전 참전 가능성을 타진함으로써 한국전에 국부군을 사용하지 않겠다던 미국 측의 정책에 변화가 생긴 듯이 보였다. 그러나 미국정부의 태도가 점차 분명해지면서 蔣介石은 국부군의 한국파병에 대해 미국 측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도리어) 국부군이 海南島로 진공하여 제2전선을 열어서 6·25전쟁의 정전담판에 압력을 가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파병을 통해 반공대륙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그의 희망과 배치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蔣介石은 미국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에 한국파병 주장도 정전담판이 진행됨에 따라 사그라들고 말았다.

1953년 6월, 한미 양국 관계는 정전문제로 인해—남한은 정전 반대를 견지한 반면 미국은 정전을 6·25전쟁 종결의 최우선 조건으로 삼았기 때문에—교착 상태에 빠졌다. 蔣介石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한국 측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었지만, 미국과 한국 모두의 장래를 위해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6월 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아이젠하워에게 전보를 보내 한국의 입장이 국가의 통일과 생존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고 정전협정 체결 전에 미한공동안전조약을 체결할 수 있기를 청원했다.

그러나 뜻밖에 미국 측은 도리어 蔣介石의 이러한 요구에 별도의 기도하는 바가 있다고 의심하여 국무장관 덜레스는 주중 임시대리공사 존스를 보내, 蔣介石에게 한국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정책을 전달하면서 만약 한국이 계속 (정전 반대를) 고집하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 어려우며 미국의 중국정책도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蔣介石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여기고 즉시 주미대사 顧維鈞에게 “한국 정세의 심각함을 감안”하여 “약소민족의 지위가 끝내 힘센 침략자에게 희생됨으로써 모든 약소민족에 대한 미국의 영도와 위신에 손상이 가고, 침략자의 또 다른 전쟁 도발을 고무하여 제3차 인류의 재앙이 일어나지 않

기를” 희망하는 자신의 입장을 덜레스에게 대신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蔣介石은 아이젠하워의 답전과 덜레스가 전달한 미국 측 입장을 누차 받은 후 정전문제는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7월 초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보를 보내 한국 측이 미국 측 입장을 이해해서 극도의 인내심을 갖고 미국과 합의를 이루도록 힘쓰고 어찌됐든 상황을 결렬시키지 않길 요망했다. 7월 12일 한미 양국이 마침내 대체적인 합의를 달성하자 蔣介石은 이 결과에 대해 매우 안도하면서 자신의 노력이 그나마 헛되지 않았음을 기뻐했다.

‘蔣總統傳’의 저자 董顯光은 일찍이 “민국39년(1950년) 6월 25일 이후 蔣 총통의 역사는 한국전쟁의 복잡한 역사 사실 속으로 개입하게 되니 그때부터 臺灣이 겪게 되는 모든 일은 한국전쟁과 피할 수 없는 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sup>77)</sup> 사실 6·25전쟁 기간 동안 전쟁의 영향으로 중화민국의 국제적 지위는 줄곧 위태롭게 요동치고 있었다.<sup>78)</sup> 蔣介石은 이런 열악한 국제정치 환경 하에서 한국의 정세발전을 끊임없이 주의하면서 각종 대응 조치를 거듭 깊이 생각했다. 그는 이 기회를 통해 중한 양국이 공동 防共의 목표를 달성하고 서방 민주국가가 아시아에 대한 정책을 새롭게 검토하여 반공진영과 반공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니, 이는 실로 그의 풍부한 정치경력과 오랜 반공경험에서 나온 행동이었다고 하겠다.

(원고투고일 : 2007. 9. 7, 심사완료일 : 2007. 11. 16)

주제어: 장개석, 이승만, 덜레스, 아이젠하워, 6·25전쟁

77) 董顯光, 『蔣總統傳』, 586쪽.  
78) 6·25전쟁 기간 동안 요동쳤던 중국의 국제적 지위에 대해서는 梁敬錚이 일찍이 미국 외교문서를 참고하여 쓴 「한국전쟁기 우리나라 국제적 지위의 요동」이라는 논문에서 1950년 7월부터 1951년 1월까지 중화민국 정부가 겪은 다섯 차례의 국제적 지위의 요동을 상세히 논술하고 있다. 梁敬錚, 『中美關係論文集』, 217~258쪽.

<ABSTRACT>

## *Chiang Kai-shek's* Reaction to The Korean War

Liu, Wei-kai

The Korean War in 1951 was not only a big event of the world, but also had a great impact to Taiwan. When the war began, US President Harry Truman ordered the United States Seventh Fleet to guard Taiwan, thus changed the situation of Taiwan.

President *Chiang Kai-shek* offered to join the war, hoping that might be an opportunity to fight back Mainland China. Though his plan didn't succeed, he still paid close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war, and also had his opinions about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This paper is based on the recently released informations about *Chiang Kai-shek* also refers to governmental documents and personal memoir, to talk about his perception and reaction of the Korean War.

Key Words : *Chiang Kai-shek*, *Syngman Rhee*, John F. Dulles, Dwight D. Eisenhower, The Korean War